

글로벌 패션 시장, K-패션의 미래에 주목

- 한국패션산업협회, 맥킨지앤드컴퍼니와 공동으로 '2023 글로벌패션포럼' 개최
- 국내 섬유패션기업 C-Level 주요 인사 400여명 참석, 성료
- 'Why K-Fashion Now?(왜 지금 K패션인가?) K-패션 미래 경쟁력 논의

- 한국패션산업협회(회장 한준석)는 맥킨지앤드컴퍼니(이하 맥킨지)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19일,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'2023 글로벌 패션 포럼'을 개최하였다. 동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)의 후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400여명의 섬유패션기업 C-Level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.
- 특히 밀라노, 런던, 시카고, 프랑크푸르트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맥킨지 의류·유통·소비재 부문 글로벌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하여 기조 강연과 심층토론을 통해 글로벌 및 한국 패션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K-패션의 문화·산업적 가치를 조망하며 지속가능 관점으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였다.

[포럼에 참석한 맥킨지앤드컴퍼니 글로벌 어패럴 리더]



- 한국패션산업협회 한준석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젬마 다우리아(Gemma D'Auria) 시니어 파트너, 아킴 베르그(Achim Berg) 시니어 파트너, 강영훈 파트너의 기조 강연과 심층 토론을 통해 패션 산업의 시사점, 미래 산업의 트렌드 파악 등 패션 브랜드의 변화 추세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. 국내 섬유패션 전문가로는 한세실업 김

익환 부회장, 앤더슨벨 최정희 대표, 무신사 허철 글로벌 본부장이 'Not just the what, it's the how that matters'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.

- 특히 글로벌화·디지털운영·지속가능성·공급망 재편·목적에 부합한 조직 운영 등 5개 주요 경영 전략으로 섬유패션산업의 미래가 형성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효율 경영, 글로벌 현지화 적용을 통한 전략적 M&A, 엔드투엔드(End-to-end) 공급망 관리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.
 - 맥킨지 전문가들은 해외 소비시장이 한국 문화 전반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구매까지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.
- 한국패션산업협회 한준석 회장은 개회사에서 패션 산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한 분석과 극복 방안을 통해 K-패션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할 수 있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얻은 영감과 통찰로 미래 패션 비즈니스 경영의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.
- 참가자들은 포럼에서 제시한 'Why K-Fashion Now?(왜 지금 K패션인가?)' 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K-패션을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.



【문의】 한국패션산업협회 사업1부 : 정다운 대리(02-528-0116, dwjung@koreafashion.org)